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위 지 희†

채 규 만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문항 수집을 위한 예비연구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경험 연구를 통해 문항을 추출하였고, 기존 양육관련 연구와 척도를 토대로 양육불안에 관한 척도들을 개발하였다. 양육의 결정 요인과 불안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부모 효능감, 애착, 완벽주의, 부모자녀 동일체감, 사회적 지지를 양육불안의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개발한 총 82개의 예비 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평정을 통해 총 60문항의 예비 척도를 구성하였다. 연구 1에서는 수집된 예비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분석 결과, 5요인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6문항), 자녀와의 애착으로 인한 불안(5문항), 자녀에 대한 염려(5문항),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4문항),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6문항)로 명명하였고, 요인간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문항을 삭제한 결과 최종 26문항이 선정되었다. 연구 2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묶인 양육불안 척도의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공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내적 일치도와 요인별 문항간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양육불안 척도는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척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양육불안, 양육 스트레스, 양육태도, 불안, 우울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2014년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위지희 /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 Tel : 02-920-7132, E-mail : yunlu01@hanmail.net

우리나라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 문화와 서구식 대중 교육이 급격히 확산된 결과, 현재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의 변화는 전반적인 가치체계가 전통적인 유형에서 근대적인 유형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으며, 동양적인 가치와 서구적인 가치가 동시에 혼재하여 있다(김규원, 1995; 한남제, 1994). 서구의 부모들과 한국의 부모들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높은 자녀 교육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구의 가치 체계의 유입과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요즘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 서구적인 가치 체계의 영향을 받아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고자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요즈음 부모 및 아동 상담 장면에서도 보면, 자녀에게 심각한 장애나 문제가 있다기보다 아이의 성향, 기질을 알고 아이를 더 잘 이해하며 아이의 기질에 맞게 양육을 하기 위해 혹은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부모 교육을 다룬 대중 매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날 한국 부모들은 과거의 부모들에 비해 자녀 양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방송, 육아 서적, 부모 교육 세미나, 인터넷 혹은 아동 상담 전문가를 통한 부모 양육 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부모양육에 대한 정보들은 젊은 부모들에게 매우 많은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과 불안감도 야기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핵가족의 증가로 인해 친인척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어머니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강박 관념과 유교문화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가 어머니에게 지나친 역할을 부여한 결과라고 여겨진다(최순자, 심공창지, 이광형, 2006). 육아 불안구조의 국제 비교 연구(최순자 외, 2006)를 보면, 한국, 일본, 대만의 어머니의 자녀 양육의 의식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어느 연령에서나 서울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세~3세의 자녀를 가진 서울 거주 어머니에서 자녀 양육의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부모 자녀관계는 모든 가정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부모 자녀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녀가 가진 특성과 부모의 특성,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 등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정옥분, 정순화, 2001). Belsky (1984)는 자녀 양육의 결정 요인 모델에서 자녀 양육의 결정 요인을 부모, 자녀, 부모가 처한 상황 요인 등 세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모 요인으로는 부모의 성격과 심리적인 특성을, 자녀 요인으로는 성과 기질을, 상황 요인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 직업, 심리적 지지 체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모델(Abidin, 1992)에서는 양육 스트레스를 크게 부모 요인과 자녀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모 요인은 우울, 유능감, 성격 및 병리적 특성, 양육자의 애착, 배우자와의 관계, 역할 제한, 역기능적 양육, 양육자의 건강, 사회적 지지로 구성하고 있고, 자녀 요인은 적응성, 수용성, 요구성, 정서, 과잉행동/ 주의력, 양육 강화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같이 부모의 역할행동과 양육을 하는데 있어 경험

하는 양육 스트레스도 단순히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불안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한다. 우선 Spielberg(1972)는 불안을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Lazarus와 Averill(1972)은 이러한 불안의 요인을 상황 변인과 기질 변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황 변인은 자극을 둘러싼 전후 관계의 요소로서 넓은 의미에서 정보처리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나타낸다. 기질 변인은 개인의 특성과 관련해서 불안을 유발시키는 요소로 인성 특성, 신념, 태도 등을 포함하며 개인의 생물학적, 문화적 천성, 개인사가 결합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지속시키는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Peurifoy(1988)은 완벽주의, 인정받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욕구,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 증상을 무시하는 경향, 통제에 대한 과도한 욕구라고 하였고, 이러한 욕구를 확인하고 작업하며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완벽주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삶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어느 것이든 약간이나마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비판적이 된다. 둘째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서의 작은 결점과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것에만 집중하면서 옳은 것은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다. 즉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높은 기대치과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허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을

을 볼 수 있다. 불안한 사람들이 자기와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두려워하는 핵심신념(나는 취약하다, 세상은 위험하다)은 위험에 대한 해석, 불안한 감정, 과도하게 보호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것이다(Sabine & Gail, 2006). 불안한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에 대한 태도와 신념에 있어서도 불안감을 가지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 즉, 지지체계에 대해서도 불신감이 높으며 자녀에 대해서도 신뢰감이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등 자기와 타인, 세상을 보는 신념에 있어서 불안감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불안은 이러한 불안과 관련된 성격 특성인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양육 효능감 수준 같은 개인 내적인 변인과 함께, 한국 부모 자녀 관계 및 사회적 지지와 같은 상황적인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완벽주의가 양육불안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Burns(1980)는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도달할 수 없거나 비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을 말하며,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안간힘을 쓰고 자신의 가치를 생산성과 성취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람들의 과도한 욕구는 자기 패배만 가져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또한 우울증, 수행 불안, 시험 불안, 사회 불안, 강박증 등의 심각한 정서 장애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수행에 대해서도 도달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실망을 하게 되면서 괴로움을 경험한다. 또한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기 쉽고 불안한 사람은

모호한 사건이나 문장을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Mathews, 1990; Macleod & Cohen, 1993) 걱정도 많이 하게 된다(Davey et al., 1992). 국내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와 특성불안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이영주, 2005; 조진주, 2008).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가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기 쉽다. Hewitt 등(1995)은 완벽주의자들은 비완벽주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Zwener와 Deffenbacher(1984)는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추하고 압도당하는 특성을 보이면서 개인적 완벽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는데, 이들은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제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며, 이것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즉 완벽주의 성향은 불안과 상당 부분 관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애착이 양육행동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원가족과의 관계 및 경험은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원가족 부모와의 경험 특히 애착 경험은 현재 자녀와의 애착 관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상호작용 방식이 결혼한 자녀가 이혼 핵가족에서 그대로 반복된다(Kerr & Bowen, 1988). 애착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Crowell와 Feladman(1991)는 어머니와 아동의 45쌍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내적 작동 모델과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행동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녀와 분리시에도

자녀에게 충분한 준비를 시켰으며, 별로 불안해하지 않고 방을 떠났다. 반면 불안정 애착 유형 중 거부형 애착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고, 분리시에도 자녀를 준비시키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또 다른 불안정 애착유형 중 하나인 몰입형 애착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은 아동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분리시 지나치게 자녀를 준비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유한익(2004)은 불안정 애착의 형태 중 거부형 애착의 어머니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요구나 필요에 무관심하여 부모 자녀관계속에서 '무반응성'을 자녀에게 학습시키고 나아가 자녀는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의존형 애착의 어머니는 자존감이나 자기 통제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자율적인 탐색을 방해하며 의존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어 자녀는 관계 속에서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며, 밀착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자녀가 불안과 우울증의 내재화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불안 애착은 우울 뿐만 아니라 불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와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ssidy & Shaver, 2008; Wei et al. 2005).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 애착과 불안에 관련한 연구에서 안정적인 부모애착일수록 불안의 수준이 낮았다(김현순, 2005; 조진주, 2008). 이같이 애착 유형에 따라서 자녀양육의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이 다르고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문제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양육효능감이 양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 믿고 자신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는 기대감을 의미하는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 능력을 설명하는 주요한 인지적 요인이다(Coleman & Karraker, 2000). 양육에 관한 인지적 요인 중 하나로 연구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양육 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Bornstein, et al. 1998; Coleman & Karraker, 1997; Dumka, et al. 1996).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유능감이 부족하며 부모로서의 정체감이 불확실한 등 부모로서 양육 효능감이 부족한 부모는 자기만의 양육 기준과 방식을 가지고 자신있고 일관되게 양육을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지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인터넷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들을 인터넷의 검색을 통해 얻는다. 인터넷을 통해 전문적인 병원을 찾고, 양육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들을 부모들의 모임이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다른 어머니들에게 묻고 조언들을 듣는다. 또한 TV를 통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동 상담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부모 교육의 강의를 접하며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부모들은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

다.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이란 전문적 원조 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상담 및 심리 치료, 정신과 의료진, 사회 사업가 등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는 지각된 문제가 심각할수록 심리 전문기관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았고(McLemman, 1991), 문제에 대한 개방성이 낮을수록, 감정에 대한 표현에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도움 추구행동을 하지 않았다(신연희, 안현의, 2005).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보다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을 추구할수록 도움 추구행동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에서는 사회적 지지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믿음이 부정적일수록 도움추구 행동을 하지 않았다(김주미, 유성경, 2002; 서신영, 1999; 신연희, 안현의, 2005; Kelly & Achter, 1995). 예전에 비해 정보 검색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빨리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은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녀의 기질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문가의 의견을 맹신하거나 심지어 비전문가인 다른 어머니들의 정보들을 사실로 인식하고 자녀에게 적용하는 폐해도 많이 보게 된다. 이처럼 방대하게 넘쳐나는 양육의 정보 속에서 부모들은 더욱 어떠한 방법을 자신의 자녀에게 적용시켜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낀다. 이러한 양육불안은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전문적인 도움 기관이나 주변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더욱 의존하는 등의 양육에 대한 도움 추구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부모의 특성을 꼽을 수 있다. 최상진(2003)은 한국의 부모 자녀관계나 자녀 양육 방식에 있어서 한국의 부모와 서양의 부모가 서로 다르게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

사한다고 지적했다. 즉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을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힘으로 보며, 부모가 상벌을 행사하고 부모가 힘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힘의 일차적 원천지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의 혈육, 즉 분신으로 여겨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신을 희생하며 인고를 감내한다. 그럼으로써 자식이 그러한 부모의 희생을 느껴 부모에 대해 측은해하며 부담을 느끼는 동일체 의식화를 시킴으로써 자녀의 심정 통제에 대한 영향력을 구사한다. 즉 한국의 부모는 자식에 대한 정(情)이라는 열린 마음을 통해 자식을 부모에 대해 심정적으로 여리게 만들어 부모에 대해 항상 미안함, 측은감, 고마움 감 등과 같은 측은지정을 갖도록 해 결과적으로 부모에 대해 순종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이운기, 2005).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면 심리도 개입되어, 한국 부모들은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자녀의 성공에 대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정(情)과 한(恨)의 심리가 '우리상' 및 '체면' 심리와 연계되어 한국인 부모 양육 태도는 애정적이지만 통제적이 될 수밖에 없다(이원영, 1983).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 문화의 양육 방식의 유입으로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여성의 자유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 자연히 자녀에게 지나친 관심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부모 자녀 일체감은 자식에게 기대하고 자식과 동일화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게 되어 밀착된 모자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박아청, 1998). 신경아(1998)는 '한국 여성의 모성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에서 3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양육태도에 있어서 전업주부들

이 갖는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중 특징적인 것은 '자신에게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아이에게 해주려는 욕구' 즉 투사 심리라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같이 모든 것을 아이에게 제공해주려는 노력은 기대감 또한 크게 만들어 전업 주부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지시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인 돌봄, 높은 관심과 정성스런 교육이 부모 역할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정옥분, 1998). 그리고 출세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사회분위기에다 부모-자녀 간 일체감이 강해 부모가 자신의 욕구를 자녀를 통해 성취하려 하고, 자녀의 출세나 성공이 자신의 자존심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정은영, 2008).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일체감, 밀착 관계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부모자녀 관계에서 적절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헌신과 희생,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일체감이 지나치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개별화 과정과 자아분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가 심리적으로 아이와 분리가 되지 못하여 아이를 더욱 유아적인 수준에서 간섭하고 과잉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는 자율성이 결핍되고 일상 생활 자기 관리나 사회 기술 등 아이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 겪어가고 익혀가며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성장하는데 간섭하고 방해가 하게 되며, 사회 적응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폐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부모자녀 동일체감으로 설명되는 한국 부모의 특성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불안을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불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어머니의 특성불안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단지 특성불안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불안은 본래 부모 개인의 특성적인 요인과 함께 한국사회의 문화적인 특성, 한국의 부모 자녀관계의 특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불안에 관한 척도 개발을 통해 부모의 양육불안의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의 심리 치료적 개입을 돕고자 한다.

예비 연구

예비 연구의 목적은 양육불안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 목록의 수집에 있다. 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불안해하는 내용을 개방형 질문형식으로 조사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였고, 기존의 양육불안 관련 문헌들과 척도들을 기반으로 문항을 추출하여 양육불안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

은 36.75(3.66)세였다.

연구 절차

경험적 접근을 통한 문항 수집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령기 및 학령 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것을 가장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되도록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100명에게 배부한 후 총 89부가 수집되었으며, 총 271개의 반응이 수집되었다. 문항 수집에 관한 질문지와 함께 연구에 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설문지도 함께 첨부하여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내용분석을 통해 일차적 요약하였다.

이론적 접근을 통한 문항 개발

기존의 양육불안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양육불안에 관한 예비문항들을 고안하였다. 기존의 양육 및 불안과 관련된 문헌 연구들(Belsky, 1984; Abidin, 1992, 1990; Binger, 2006; Lazarus & Averill, 1972; Peurifoy, 2005; Sabine & Steketee, 2006)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양육불안과 관련된 요인을 ‘부모의 완벽주의, 양육의 효능감, 자녀와의 애착, 자녀와의 동일체감, 사회적 지지’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문항들을 수집하기 위해 양육불안의 구성요인과 관련된 기존의 ‘완벽주의 척도, 애착, 사회 문화적 특성, 전문가 도움 추구 및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척도들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임시 문항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척도는 다음과

같다. Hewitt와 Flett(1991)의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한기연(1993)이 번안한 것과 Snell 등(2005)의 다차원적 양육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arenting Perfectionism Questionnaire (MPPQ))를 참고로 양육불안 척도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을 고안하였다. Giba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문항으로 이루어진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신숙재(1997)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Brennan 등(1998)의 친밀관계 경험 검사인 애착 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를 참고하였다. 방희정 등(2007)이 개발한 관계적 자기 척도와 Hovestadt 등(1985)가 제작한 Family of Origin Scale(FOS)를 최현미(1997)가 한국 가족 정서에 맞게 개발한 원가족 척도를 기반으로 양육불안에 맞게 수정하여 고안하였다. 마지막 Fisher와 Turner(1970)이 개발한 도움 추구 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SPPH)를 참고로 하여 사회적 지지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결 과

수집한 문항들 중 반복되는 문항은 삭제하였고 연구자가 선정한 요인을 기반으로 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부모 반응을 통한 문항들과 기존 척도들을 수정한 문항들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최종 82개의 예비 문항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예비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교육전문가 1인과 임상심리전문가 5인에게 예비 문항을 보

여주고 각 문항이 각 요인의 구성개념에 적합한지, 각 요인을 명료하게 측정하는지, 문장이 간결하고 명확한지, 문장이 이해하기 쉬운지, 표현이 적절한지를 평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평정 결과, 삭제, 요인 이동, 문항 내용 수정 등의 피드백을 받았고, 한명의 전문가라도 삭제라고 평정한 경우 삭제되었다.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거쳐 최종 60개의 문항이 예비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1. 탐색적 요인 분석

방 법

연구 대상

서울과 경기 지역의 유치원(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문항을 배부하였고 총 398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에 포함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8.75(3.52)세였다. 유치원생 자녀는 총 121명, 초등학교 자녀는 총 277명이었고, 이 중 남자는 197명, 여자는 194명(결측값 7명)이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상담을 받은 유무에 관해서는 있다가 81명(20.4%)였고, 없다가 316(79.4%)였다. 자녀수는 1명이 68(17.1%), 2명 283(71.1%), 3명이 42(10.6%), 4(0.5%), 5명이 1(0.3%)로 자녀가 2명이 가장 많았다. 문항 수집에 관한 질문지와 함께 연구에 관한 동의서도 함께 첨부하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절차

연구자가 기존의 문헌들을 근거하여 문항들

을 수정, 개발하였고 Likert 5점 척도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거된 문항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연구자를 포함하여 부모교육 전문가 및 임상심리 전문가 6명을 통해 요인이 적절하게 분류가 되었는지, 삭제가 필요한지, 요인결과가 적합한지, 요인 이름은 적절히 명명되었는지 묻는 설문을 배부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수집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용 타당도를 실시한 후, 요인 제목을 명명하고 적절한 문항과 요인을 최종 선별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기술 통계와 요인 분석에 대한 검증으로 SPSS 20.0과 M-plus 7.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PSS 20.0을 사용하여, KMO와 Bartlett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주축 요인 추출 방식을 사용하였고 회전방식은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목록별 결측값은 제외하였다. 그 다음으로 M-plus 7.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행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행선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와 조사대상의 숫자 및 변수의 수가 똑같은 랜덤 데이터를 생성해 해당 데이터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데이터는 랜덤으로 발

생하였기 때문에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해당 데이터보다 고유치가 더 높은 수만큼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랜덤 데이터 고유치 결정 방법으로는 95% 방법 이용한다. 분석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고 회전방식은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실시하였다. 평행선 분석에 있어서 SPSS보다 M-plus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M-plus를 사용하였다(Hayton, Allen, & Scarpello, 2004; Horn, 1965). 요인 부하량 행렬은 SPSS를 사용하여 형태 행렬(pattern matrix)을 보았다. 이 과정에서 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고 연구자를 포함하여 임상심리전문가 및 부모 교육전문가 6인을 통해 최종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도록 하였다.

결 과

문항 분석을 통해 변별된 양육불안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 척도의 Cronbach's α 는 .97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예비 양육불안 척도는 모두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표 1에 제시한 바처럼, KMO 값

표 1. 양육불안 척도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62
	근사 카이제곱	15154.77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자유도	1770
	유의확률	0.000

이 .962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 그림 1의 <스크리 도표>를 보면 양육불안 척도의 고유값이 평행선 분석의 고유값보다 5요인까지 높고, 6요인부터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요인은 5요인으로 나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평행선 분석에서는 평행선 분석을 통해서 나온 고

유값보다 분석 자료의 고유값이 높은 요인 수만큼 요인이 있다고 결정한다.

양육불안 척도의 요인 부하량을 보여주는 표 3에서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자녀와의 애착으로 인한 불안,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의 5요인으로 묶였으며, 이 요인이 양육불안 중 양육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량은

표 2. 양육불안 척도 고유값 및 평행선 분석

	양육불안 척도 고유값	분산 비율	누적 분산비율	평행선 분석 고유값(95%)
1	17.165	40.047	40.04	1.931
2	2.694	4.850	44.897	1.829
3	2.053	3.688	48.585	1.767
4	1.821	3.111	51.697	1.712
5	1.714	3.011	54.707	1.666
6	1.480	2.388	57.095	1.622
7	1.292	2.151	59.247	1.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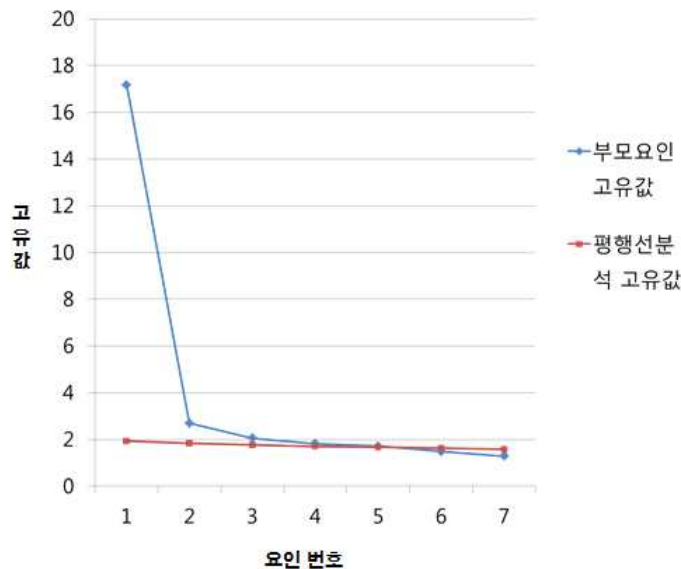


그림 1. <스크리 도표> 양육불안 척도 고유값 및 평행선 분석 고유값

표 3. 양육불안척도 최종 문항 내용 및 요인 분석 결과

문항	내 용	요인				
		1	2	3	4	5
5	나는 내 아이가 나의 모자란 부분을 닳을까봐 걱정이다.	.799	.167	.107	-.305	.028
21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 책임인 것 같은 부담감에 불안하다.	.592	-.106	.074	.161	.127
32	아이의 문제는 모두 내 양육의 잘못된 것 같아 불안하다.	.651	-.091	.196	.033	.050
45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경험했던 괴로움을 아이도 겪을까봐 걱정된다.	.442	.017	.175	.115	.029
65	나는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키우고 있는지 불안하다.	.839	.084	.051	-.073	-.089
69	나는 부모로써 아이에게 좋은 본모기를 보여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980	.007	-.073	-.117	-.008
23	나의 부모님은 나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존중해주지 않는 편이어서, 나도 자녀를 존중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213	.460	.048	.080	-.006
24	나는 아이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기보다 자꾸 챙기고 도와주어야하는 존재로 느껴져 부담스럽고 두렵다.	.177	.582	.057	.047	-.067
50	나의 부모님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수용해 주지 않는 편이어서, 나도 아이가 나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불편하다.	-.060	.724	.016	.165	.003
57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따뜻하거나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내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	-.033	.809	.040	.083	-.117
68	나는 아이가 나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불편하다.	.144	.609	.132	-.159	.035
11	아이가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다그치게 된다.	.007	.197	.678	-.237	.165
13	나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불안하다.	.181	-.155	.521	.235	.033
35	나는 아이가 남들만큼 잘 하지 못하면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 같다.	.120	.040	.578	.011	.102
56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더 마음이 쓰인다.	.143	-.300	.574	.157	.124
61	아이가 성공하지 않으면, 내가 남들 앞에 나서기 힘들 것 같다.	-.225	.166	.626	.141	.145
16	양육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112	.104	-.152	.656	.198

표 3. 양육불안척도 최종 문항 내용 및 요인 분석 결과 (계속)

문항	내 용	요인				
		1	2	3	4	5
18	양육에 대한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불안하다.	-.102	-.054	.220	.707	-.094
29	양육에 관해 육아 서적, 인터넷, 상담에 항상 의존하여도 불안하다.	.071	.132	-.051	.573	.089
47	가까운 곳에 양육에 도움을 받을 만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아서 불안하다.	.256	-.006	-.085	.560	.034
7	나는 양육을 할 때 부모로써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85	-.025	.237	-.027	.423
17	나는 아이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179	-.033	.261	-.060	.506
55	나는 주변에서 아이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073	.078	.144	.119	.502
62	주변 사람들은 내가 부모로써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한다.	-.053	.114	-.234	.099	.805
70	나는 아이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잘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매사 불안하다.	.154	.207	.114	.005	.434
72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아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고 말한다.	.142	-.034	.010	.189	.452
고유치		17,165	2,694	2,053	1,821	1,480
설명 변량(%)		40,047	4,850	3,688	3,111	3,011
누적 설명변량(%)		40,04	44,897	48,585	51,697	54,707

54.707%였다. 이상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후 SPSS로 형태 행렬을 살펴본 결과, 이 과정에서 요인 부하량이 .4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 요인 부하량이 .4 이상이지만 여러 요인에서 중복되어 부하량이 높은 문항은 삭제하였고, 요인의 설명을 높이기 위해 해당 요인에 적합하지 않는 문항은 6명의 임상심리 전문가와 부모 교육 전문가의 내용타당도의 검증 후에 삭제 권고를 받는 문항은 모두 삭

제하였다. 그 결과, 총 60개의 예비 문항에서 총 26문항으로 최종 문항이 선정되었다.

양육불안 척도의 요인 1은 '부모 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은 양육을 하는데 있어 부모로써 자신감이 부족하고 부족한 자신을 자녀가 닮을까봐 염려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의 과도한 책임감, 자녀와의 지나친 밀착관계, 부모 역할에 있어 효능감이 부족함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는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양육을 하는데 있어 원가족과의 애착 형성과 자아 분화 수준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원가족과의 관계가 현재 자녀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있어서 느끼는 불안감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3은 '자녀에 대한 염려'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자녀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고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지, 자신의 자녀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은지 등 자녀에 대한 염려감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4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양육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만한 대상이 부재하고 양육에 있어서의 도움이 있어도 이러한 양육적인 도움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함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5는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자신의 양육에 있어서의 완벽주의 성향과 다른 사람이 자신이 완벽하기를 기대하는지를 측정하고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높은 기준을 가짐으로써 느끼는 불안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2.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화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한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

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연구 2는 연구 1의 요인구조가 다른 대상에게도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 1과 다른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2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3세 이상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4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자녀 문제로 치료를 받으러 소아정신과에 내원한 어머니에게 이 설문지를 480부 배부하고 수거한 결과 성실하게 회수된 설문지 중 성실하게 답변된 421부를 사용하여 양육불안에 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9.24세(SD 4.2)이었다. 자녀 성별은 남아 226(53.7%), 여아 191명(45.4%)이었고, 이 중 미취학은 133(13.6%), 초등학교 자녀는 285명(67.8%)이었다. 자녀수는 한 명 122(26.6%), 두 명 249(59.1%), 세 명이 54(12.8%), 네 명 4(1.0%)로 두 명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 직업으로는 주부 232명(55.1%)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27.3%, 전문대 졸업 24.5%, 대학교 졸업 37.3%, 대학원 졸업 10.0%이었다. 월평균 가계수입은 100만원 이하 0.7%, 100~200만원 이하 6.2%, 200~300만원 이하 16.9%, 300~400만원 이하 28.3%, 400만원 이상 45.6%였다. 자녀 양육에 관한 상담 유무에 관해서는 있다라고 답한 어머니가 105명(24.9%), 없다라고 답한 어머니가 315(74.9%)

로 나타났다. 문항 수집에 관한 질문지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동의서도 함께 첨부하여 동의를 받았다.

측정 도구

양육불안 척도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부모교육 전문가와 임상심리전문의의 내용 타당도를 통해 선정된 최종 26문항의 양육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불안 척도는 하위 요인은 부모 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척도

Abidin(1990)이 제작한 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신숙재(1997)가 번역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PSI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 측면이나 부모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된 부모용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부모영역과 자녀영역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측정 도구는 하위요인별로 '일상적 스트레스' 10문항,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9문항,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3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3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85,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

레스 .773,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805로 높게 나타났다.

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Schaefer(1959)의 MBRI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이원영(1983)이 번안한 것을 최유경(1999)이 재수정한 부모 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태도(12문항), 거부적 태도(12문항), 자율적 태도(12문항), 통제적 태도(12문항)로 구분하고 있으며,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애정적 태도 .822, 거부적 태도 .851, 자율적 태도 .719, 통제적 태도 .635로 나타났다.

상태-특성불안 척도

부모의 불안 수준을 평가하고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ielberger(1970)에 의해 개발된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사용하였다. 김정택(1978)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표준화작업을 하였다. STAI는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ATAI-S),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STAI-T)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가깝다고 해당되는 쪽에 응답하는 4점 Likert 척도이다. 상태불안에서 10문항(1, 2, 5, 7, 10, 11, 15, 16, 19, 20), 특성불안에서 7개 문항(1, 6, 7, 10, 13, 16, 19)이 역채점되며, 총점은 각각 최저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특성불안은 .916, 상태 불안은 .951로 나타났다.

우울척도

이 척도는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1961)이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생리적 영역을 포괄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총 21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이 척도는 우울의 정도에 따라 기술되어 있는 4개의 문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4점 척도이며,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가 주어지므로 총점은 0점에서 63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우울수준을 나타낸다. 신민섭(신민섭 외, 1993)의 연구에서 기저율을 50 : 50으로 상정한 경우 16점을 분할점으로 보고 있고, 기저율을 70:30으로 상정하였을 때는 22점이 우울증과 정상집단을 분류하는 분할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7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다른 집단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구 1 표집에 국한된 결과인지 검토하기 위해 M-plu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SPSS를 사용하여 양육불안 양육불안의 하위 요인간의 상관을 보았다. 또한 양육불안과 우울, 불안간의 상관 분석을 하여 공인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앞의 연구 1 결과에서 양육불안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전문가의 내용타당도를 통해

표 4. 양육불안척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유의확률)	RMSEA	TLI(NNFI)	CFI	SRMR
검증모형	721.749 (0.000)	.054	.900	.912	.050

표 5. 양육불안 척도의 신뢰도, 평균 및 표준편차

척도		내적일치도	평균	표준편차
양육불안 척도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87	2.78	.82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75	2.17	.68
	자녀에 대한 염려	.81	2.07	.69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79	2.71	.72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80	2.45	.67
전체		.94	2.46	.60

최종적으로 5요인, 26문항이 선정되었고 이러한 요인 구조가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불안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양육불안 척도의 적합도를 고려했을 때, RMSEA=.057로 괜찮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고, TLI와 CFI값 또한 .9 이상이기 때문에 좋은 적합도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양육불안 척도 하위요인간 상관

양육불안척도의 5개 요인간 상호상관행렬을 표 6에 제시하였고 모든 하위 척도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바처럼, 양육불안척도의 하위요인간에 .42~.76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어서 관련성이 있지만 구분되는 구성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육불안 전체와 하위요인별 상관은 .75~.89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육불안의 하위요인은 양육불안 척도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불안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앞서서 어머니의 양육불안척도에 대한 내적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외적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처럼, 양육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간의 상관은 .17~.57로 나타나고 있어,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척도의 하위 척도들 간에도 비교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 불안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녀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 나타난 바처럼, 양육불안의 하위요인과 양육 태도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불안의 하위 요인은 대부분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우울, 불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표 6. 양육불안 척도의 하위 요인간 상관(n=421)

하위 요인	1	2	3	4	5
1.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1	.639***	.640****	.768****	.553***
2.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1	.592**	.590**	.499***
3. 자녀에 대한 염려			1	.585****	.459***
4.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1	.637***
5.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1
양육불안 전체	.894****	.777****	.785****	.876****	.774****

***p < .001.

표 7. 양육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n=421)

하위 요인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471***	.495***	.450***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393***	.385***	.347***
자녀에 대한 염려	.522***	.575***	.424***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504***	.473***	.491***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279***	.246***	.218***

***p < .001.

표 8. 양육불안과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n=421)

하위 요인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236***	.618***	-.217***	.160***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419***	.634***	-.283***	.089
자녀에 대한 염려	-.257***	.637***	-.317***	.246***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183***	.457***	-.230***	.083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065	.405***	-.120*	.347***

***p < .001.

표 9. 양육불안과 우울, 불안간의 상관관계(n=421)

하위 요인	특성불안	상대불안	우울증척도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549***	.495***	.494***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361***	.334***	.327***
자녀에 대한 염려	.471***	.418***	.392***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464***	.400***	.419***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271***	.240***	.252***

***p < .001.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불안의 하위요인과 우울, 불안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 결과 양육불안의 하위 요인 모두 우울증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특성불안과 상태불안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가 우울감, 불안감이 높은 부모는 부모 양육의 불안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 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육불안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경험 연구와 기존 척도를 기반으로 문항을 수집하는 예비연구를 하였고, 연구 1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연구 2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과 다른 변인간의 상관을 통해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예비 연구에서는 기존에 양육불안에 관한 척도가 부재하여 문항 개발을 위해 어머니를 대상으로 경험 연구를 하였다. 우리나라 부모를 대상으로 자유반응형의 질문을 통해 양육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불안의 내용들을 수집하였다. 또한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문헌 연구들을 기반으로 기존의 척도를 수정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양육에 대한 태도, 애착, 완벽주의, 한국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 문화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양육불안을 어머니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과 함께 한국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예비연구에서 추출된 예비문항들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어머니들을 통해 수집한 불안의 내용들과 문헌 연구들을 통해 수집한 문항들을 근거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고,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5요인이 발견되었다. 요인 1은 부모 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으로 명명하였는데,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부족한 등 부모 역할에 있어 효능감이 낮아 나타나는 문제들을 자녀가 닮을지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에 한국 부모 자녀관계의 특성인 관계주의를 반영하고 지나친 밀착관계, 미분화된 부모 자녀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들이 요인 1로 포함되었다. 요인 2는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으로 명명하였는데, Bowlby가 제안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즉 양육자의 어린 시절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계속되고 그것은 후속 관계 형성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태도와 부모와의 관계 방식이 현재 자신의 자녀에게 미치는 관계, 즉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불편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요인 3은 자녀에 대한 염려로 명명하였는데, 자녀가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자신의 자녀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등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불안해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녀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으로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까 불안해하는 자녀와의 동일체감 및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요인 4는 사회적 지지로 인한 불안으로 명명하였는데, 양육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불신감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현재 부모들은 핵가족화가 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양육의 도움을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들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모는 양육 관련 인터넷 동호회, 부모 교육, 서적 등의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양육의 도움을 받고자 노력을 하지만 요인 4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자신에게 실제 유용하고 신뢰로운 정보를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염려하고 이러한 양육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요인 5는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으로 명명하였는데,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느끼는 등 부모 자신의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아이 양육을 할 때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추출된 최종 문항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불안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양육불안척도의 신뢰도(내적 일치도)를 구한 결과, .94로 매우 높았고,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도 .75~.87에 걸쳐 비교적 양호하였다. 본 척도를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기초를 근거로 공인타당도를 수집하였다. 본 척도의 구인 타

당도를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 때와는 다른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이한 표집에서 요인구조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육불안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양육 스트레스, 양육태도, 우울, 불안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양육불안은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의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세 요인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육불안의 모든 요인 즉, 부모가 역할 효능감이 부족하여 느끼는 불안감과 자녀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며 자녀에 대한 염려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불안정하며 부모 자신의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 양육에 있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머니가 불안을 느끼게 되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게 되고(손영지, 2010; 천혜영, 2011), 신경증이 높은 집단이 신경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길연하, 1996)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ADHD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며 부모로서의 불안감이 높은 결과와도 일치되게 나타났다(서민정 외, 2003). 이같이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데 있어 불안감이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느끼는 스트레스를 매우 크게 느끼고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 양육에 있어 단순히 양육의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에 있어 이면의 양육에

관한 불안감이 높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히 어떤 부분의 불안감이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어머니의 정서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불안과 양육 태도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양육불안은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양육불안과 거부적 태도와의 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데 있어 불안감이 높으면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렵고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혜린(2012), 김영희, 장래수(2004)의 연구와 일치되게 나타났다.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된 어머니의 불안감을 이해함으로써 양육에 있어 불안감을 낮추어주는 개입을 통해 보다 건강한 양육개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불안과 우울,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불안은 어머니의 우울 및 불안과 정적 상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불안은 우울, 일상적인 스트레스, 양육의 죄책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천혜영(2011)의 연구와 불안한 어머니는 우울하기 쉽고 우울한 어머니는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진(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불안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성불안이 높은 어머니 또한 양육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우울증은 불안과 관련이 높은 요인이기는 하나 또 다른 정서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 불안 척도에서는 우울과 불안이 서로 관련이 있기는 하나 명백히 다른 정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혼용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본 척도는 불안의 특성을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불안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특성불안이 높고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어머니의 완벽주의라는 개인적인 특성과 부모의 양육의 태도, 애착 등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된 양육불안을 개발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미치는 불안 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는 양육불안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의 참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많은 개입을 하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험 연구와 양육불안에 관한 연구도 추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전체 양육불안과 불안, 우울, 양육태도,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나, 양육불안 척도의 각 하위 요인과 다른 하위 척도와 어떻게 변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양육불안 척도의 개발시에 자발적인 평정 의사를 전제로 하였기에, 평정에 임하는 어머니의 검사 태도와 타당성 여부를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서 방어적이거나 부정 왜곡 혹은 긍정 왜곡의 태도를 보이는 부분을 제대로 탐지해내

지는 못하고 있다. 차후에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 및 왜곡된 태도를 감지해낼 수 있는 타당화 척도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학력, 수입 등의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은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녀의 장애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지 않았다. 어머니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심리적인 변인 외에도 다양하므로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 수준 등 심리적인 변인 외에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장애 학생 불안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건강장애 학생의 부모의 불안 의식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을 볼 때(장희대, 2010; Bayar et al., 2008; Cohen & Martinson, 1988), 자녀의 장애도 정신장애 뿐 아니라 건강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피험자를 통해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령 전기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넓게 하여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 문화적인 특성인 관계주의적인 태도를 반영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상담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녀수는 감소하고 자녀를 더욱 완벽하게 잘 키우고 싶은 욕구가 높아졌지만, 본 척도가 자녀 양육에 대한 범람하는 정보들로 인해서 더욱 혼란감을 느끼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불안감을 측정해 이들을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기에 임상 장면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길연하 (1996). 성격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 외향성과 신경증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원 (1995).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문제의식: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 논집, 7, 213-255.
- 김영희, 장래수 (2004). 부모의 완벽주의, 우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행동. 놀이치료 연구, 8(1), 118-138.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문화적 요인.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4(4), 991-1002.
- 김현순 (2005). 청소년 애착과 자아 탄력성이 정서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 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 연구, 5(1), 53-72.
- 방희정,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7). 한국 성인의 관계적 자기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23-63.
-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 (2003).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 정서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어머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69-81.
- 서신영 (1998). 대학생의 자존감, 대처방식과 도

- 움 추구태도와의 관계 연구.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영지 (201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관계: 성격의 중재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아 (1998). 한국 여성의 모성 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30대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섭, 김중술, 박광배 (1993). 한국판 BECK 우울 척도의 분할점과 분류 오류.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2(1), 71-81.
-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 추구행동에서 접근 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 신혜린 (2012). 어머니 특질 불안이 어머니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한익 (2004). 부모의 애착유형과 아동의 정신병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5). 완벽주의와 특성불안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운기 (2005). 자아분화와 우리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진 (2006).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희대 (2010). 건강장애 학생 부모의 불안의식과 양육태도 및 자이존중감과의 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 정순화 (2001). 부모 교육-부모 역할의 이해. 양서원.
- 정은영 (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 (1998). 청년 발달의 이해. 학지사.
- 조진주 (2008). 청소년의 애착과 완벽주의성향이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혜영 (2011). 어머니의 불안과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상진 (2003).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출판부.
- 최유경 (1999). 부모간 양육태도, 출생 순위,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친구관계와 인기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미 (1997). 원가족 척도 연구-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순자, 심공창지, 이광형 (2006). 육아불안 구조의 국제비교: 한국, 일본, 대만 어머니의 자녀 양육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 연구, 11(1), 163-176.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

- 사학위논문.
- 한남제 (1994). 한국 가족관계의 문제. 서울: 다산출판사.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7.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407-412.
- Bayat, M., Erdem, E., & Kuzucu, E. G. (2008). Depression, anxiety, hopelessness, and social support levels of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cancer. *Journal of pediatric oncology*, 25(5), 247-253.
- Beck, A. T., Brown, G., Eidelson, J. I., Steer, R. A., & Riskind, J. H. (1987). Differentiating anxiety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cognitiv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79-183.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igner, J. J. (2006). *Parent-child relationship: An introduction to parenting(7th ed.)*. NJ: Pearson Education Inc.
- Bornstein, M. H., Haynes, O. M., Azuma, H., Galperin, C., Maital, S., Ogino, M., Painter, K., Pascual, L., Pocheux, M., Rahn, C., Toda, S., Venuti, P., Vyt, A. & Wright, B. (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Argentina,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62-674.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 34-52
- Cassidy, J., & Shaver, P. R.(Eds.). (2008).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Cohen, M. H., & Martinson. I. M (1998). Chronic uncertainty: Ins effect on parental appraisal of a child's health,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3, 89-96.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 13-24.
- Crowell, J. A., & Feldman. S. S. (1991). Mother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mother and child behavior during separation and reun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97-605.
- Davey, G. C. L., Hampton, J., Farrell, J. & Davison, S. (1992). Some characteristics of worrying: evidence for worrying and anxiety as separative constru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2), 133-147.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Fisher, E. H., & Turner, J. (1970). Orientation to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 79-90.
- Giban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Hayton, J. C., Allen, D. G., & Scarpello, V. (2004). Factor retention decision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tutorial on parallel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7, 191-205.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Flett, G. L., Sherry, & Mikail, S. F. (1995). Perfectionism and family adjustment in pain patient and their spous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335-347.
- Horn, J.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20, 179-185.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e, M. (1985). A family of 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Kelly, A. E., & Achter, J. A. (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0-46.
- Kerr, M. E. & Bowen, Murray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Norton.
- Lazarus, R. S. & Averill, J. R. (1972). Emotion and cogn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anxiety. In Spielberger, C. D. (Ed.) (1972).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p.241.
- MacLeod, C., & Cohen I, L.(1993). Anxiety and the interpretation of ambiguity : a text comprehension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2), 238-47.
- Mathews, A. (1990). Why worry? The cognitive function of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 455-468.
- McLemna, J. (1991). Formal and informal counselling help: Students experienc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19, 149-159.
- Peurifoy, R. Z. (1988). *Anxiety, Phobias, and Panic: Taking charge and conquering fear*. Citrus Heights, Calif.: Lifeskills.
- Sabine Wilhelm, Gail S. Steketee (2006). *Cognitive Therap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New Harbinger.
- Schaefer, E. S., Bell, R. Q., & Bayley, N.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nell, W. E., Jr., Overbey, G., & Brewer, A. L. (2005). Parenting perfectionism and the

- parenting ro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613-624.
- Spielberger, C. D.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Current Trend,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 Zwener, W. A., & Deffenbacher, J. L. (1984). Irrational beliefs, anger, and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91-393.
- 원고접수일 : 2015. 02.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5. 08. 24.
게재결정일 : 2015. 10. 3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ing Anxiety Scale

Ji-Hee We

Kyu-Man Chae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arenting Anxiety Scale for mothers of preschool and school-aged children, and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Scale. The preliminary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content items for the Parenting Anxiety Scale. Eighty nine mothers, experiencing parenting anxiety were asked to report the difficulties with parenting their children. The content items selected based on the parental reports were analyzed by factorial procedure. The preliminary Parenting Anxiety factors were composed of Parenting Efficacy, Attachment, perfectionism, parent-child bonding, and social support system. -The preliminary items selected by the experts in parenting were reduced from 82 to 60 items. The first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factors of the Parenting Anxiety Scale. The 60 preliminary items were analyzed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five factors and final 26 items were selected for the Parenting Anxiety Scale, including parenting efficacy_(6 items), anxiety due to mother-child attachment_(5 items), worries about children_(5 items), anxiety regarding-social support_(4 items), and perfectionism_(6 items). The second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Parenting Anxiety Scale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internal consistency and factors of inter-item correlation of the Parenting Anxiety Scale demonstrated satisfactory reliability. The newly developed parenting anxiety showed a correlation with another related scales. In summary, these studies proved that the newly developed Parenting Anxiety Scale can be a reliable and valid scale for assessment of parenting anxiety.

Key words : Parenting Anxiety,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Anxiety, Depression